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의도를 이끄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치 대화와 투표자 우대 제도, 내재적·외재적 정치 효능감을 중심으로*

신경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강사**
김정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언론홍보실***
한미정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의 투표 참여 의도에 관련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법

25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투표 참여의 장애 요인인 청년 공약 부족에 대한 인식과 정치 대화 부재, 투표 참여 촉진 요인으로 민주시민 교육과 투표자 우대 제도, 그리고 투표 참여에 대해 내·외재적 정치 효능감 등이 대학생의 투표 참여 의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에 따르면, 정치적 대화는 외재적 정치 효능감에 한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수록 외재적 정치 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재적 정치 효능감은 투표 참여 의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촉진 요인 중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내재적 정치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와 같은 보상을 제공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재적 정치 효능감에서 투표 참여 의도 간의 경로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내재적 정치 효능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투표 참여 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에게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는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장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내·외재적 정치 효능감과 투표 참여 의도 간의 경로를 검증한 결과, 두 차원의 정치 효능감은 투표 의도에 중요한 선행 변인임이 확인되었고,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한 대화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이들의 적극적인 투표 행동에 중요한 변인임이 확인되었다.

KEY WORDS 대학생, 투표 참여, 내재적 정치 효능감, 외재적 정치 효능감, 정치 대화, 투표자 우대 제도, 정치 신뢰

* 본 연구는 제2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성된 논문임.

** chloe563@gmail.com, 제1저자

*** kimje114@naver.com, 제2저자

**** mjhan909@hanyang.ac.kr, 교신저자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힘은 선거로부터 나온다.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며, 대학생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겠다(Kim, 2017; Cho, 2010). 최근 이루어진 지방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20대의 청년층이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50~60대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이 80.0%로 가장 높았고 30대(75.7%), 60대(75.6%), 50대(72.7%), 40대(7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19세~29세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가진 이들의 응답률은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54.3%에 그쳤다. 30대 이상의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이 투표 참여에 의향을 보이는 반면, 20대의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투표를 ‘선택’ 개념으로 보는 듯하다. 특히 대학생 집단은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 인증, 온라인 선거운동 등 사회 연결망(SNS)을 통해 활발한 심리적 참여를 하고 있지만 투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참여에는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Jang & Ryu, 2017).

젊은 세대의 낮은 투표율은 자연스럽게 이들의 이익이나 입장을 등한시하게 되는 환경을 조성하

게 되므로 정치에 대한 세대 균열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Choi, 2016). 특히, 이미 취업, 주거, 복지 등에서 ‘삼포 세대’라 불리며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대학생 집단은 더욱더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정책 마련에 있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투표를 통한 정치적 참여에 한층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을 위한 정책이 보다 활성화되고 입법의 장에서 우선시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실천적 참여인 투표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금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 교육이나 공공 커뮤니케이션 등의 중재적 접근(intervention)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철이 되면 연예인 및 일반인들을 모델로 한 CF 및 뮤직 비디오 등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미디어 캠페인을 실시하는 정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대학생들이 투표라는 정치적 참여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느끼고 투사(reflect)하는지 이들의 투표에 대한 생각과 인식을 개념화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투표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고 그 결과 도출된, 대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느끼는 ‘내적, 외적 효능감’이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 투표 참여에의 장애 요인으로 꼽은 ‘젊은 세대를 위한 공약의 부재’, ‘정치적 대화의 기피’ 등의 인식과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와의 관계, 그리고 대학생들이 투표 참여의 촉진 요인으로 인식하는 ‘민주시민 교육’과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 등의 요인들이 투표 참여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

지 파악하였다.

선행 연구 고찰

대학생의 투표 참여 행동에 대한 이해

본 연구의 연구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투표에 대한 태도와 생각,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투표 참여와 관련한 장애 요인, 그리고 그들이 제안하는 투표 참여의 촉진 요인 등을 살펴보는 포커스 그룹 토론을 실행하였다.¹⁾ 토론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투표와 관련해서 자신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 부족, 그리고 정치인들의 반응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 등 정치적 효능감에 대해 빈번히 언급하였다. 또한 투표 참여에 있어서 그들이 인식하는 장애 요인으로는 자신들 세대에 관련한 공약에 대한 부재를 언급하였는데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 부족하며, 자신들을 ‘공약 소외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정치에 대한 대화(소통)의 부재가 투표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친구들 간에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이고 친구끼리 서로 부딪치기 싫어서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아이디어로는 투표에 대한 시민 교육을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청소년기부터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토

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해 말하기부터 학습하고 선택적으로 배우는 민주주의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투표 참여 시 우대 제도로 문화 시설이나 놀이공원 할인 등의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공약 부재, 정치 대화 부재, 시민 참여 교육, 투표 참여 우대 제도와 내재적·외재적 정치 효능감, 그리고 정치 신뢰감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 행동 의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투표 참여 장애 요인: 청년 공약 부재, 정치 대화 부재

청년 공약의 부재에 대한 인식

정치 선거에서 공약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유권자들은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지지하며, 투표를 통해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앞서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도 대학생들은 정치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20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만값 등록금과 같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공약이 제시되었을 때 해당 후보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진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들의 직접적인 언급을 살펴보면 “제 생각에는 젊은이 잘못 보다는 사회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1) 포커스 그룹 토론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20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감지적 접근에 바탕한 질문을 중심으로 한 그룹 당 5~6명으로 12그룹, 69명의 학생들이 포커스 그룹 토론에 참여하였다.

면 젊은이를 배려한 공약도 없고 그냥 뭐가 다 40, 50, 60대를 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 당연히 멀어지는 것 같아요”와 “반값 등록금 공약에선 정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 당시 나이가 안 돼서 못했지만, 그 공약으로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의 언급들이 이러한 인식을 보여 주었다.

즉, 투표 참여에 있어 유권자는 자신이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을 평가한 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거나 도움이 될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더욱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의 약 33%의 유권자들이 후보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으로 약 30%의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제시한 이슈들과 정책 공약들에 영향을 받아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2018).

한편, 송건섭과 박동춘(Song & Park, 2017)이 대구·경북 유권자를 대상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른 세대는 정치 성향이나 정당을 후보 선택의 결정적 동기로 응답한 것에 비해 2030세대가 대선 후보자 선택의 결정적인 동기로 선택한 것은 ‘대선 공약’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030세대들은 후보자들 간의 정책이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더욱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후보자와의 거리감을 작게 느끼는 경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스러운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권을 선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3).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2030세대 유권자들이 다른 세대보다 투표 참여가 낮으며 정치 불신은 높고 기권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eo, 2009).

실제로 19대 총선에 제시된 493건의 공약 중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공약은 청년 일자리와 복지 분야 14건, 대학 등록금 등 교육 분야 6건으로 약 0.25%에 불과했다(Kim, Park, & Park, 2015). 20대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세대들에게 기대 효용을 충족시킬 만한 정책 공약이 투표 참여의 요인이 된다면, 20대 투표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은 현실적 원인으로 그들을 위한 공약의 부재로 꼽을 수 있겠다.

정치 관련 대화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공적 사안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개인의 의견 및 태도를 형성하며 특히, 또래 집단 또는 준거 집단과의 대화는 주요 사적 여론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한다. 정치 참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성찰 등은 참여 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소통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참여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Kim, 2017).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도 유사한 견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정치적 의견 교류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독려하는 주변의 분위기 또한 형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정치 얘기를 많이 못하

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장애 요인인 것 같아요”, “투표를 막 해야 한다 등 독려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치 얘기를 서로 안 하죠. 부딪히기가 싫어서” 등의 언급이 이루어졌다

과거에는 ‘숙의적 논의’에 해당되는 정치 토론 및 정치 담화 등의 개념만을 정치적 대화의 범주에 넣었으나, ‘비형식적인 정치적 대화’ 혹은 ‘사교적 대화’나 ‘일상적 대화’까지 정치적 대화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가 지지받고 있다 (McLeod, Schuefele, & Moy, 1997). 이는 시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지역 사회의 공적 사안들에 대한 비형식적 이야기를 상당히 자주 나누며, 이러한 대화는 더 높은 수준의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영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들 간의 대화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가족 간 대화를 생각할 수 있다. 가족 간 정치 대화가 높을수록 정치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 이러한 정치적 대화는 다른 정치 태도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표 행위와 같은 실천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반면에 김수정과 정연구(Kim & Cheong,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의 정치적 대화는 집회 참여와 같은 정치 행동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면대면 대화는 정치 행동 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프라인 정치 대화의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치 대화는 정치 지식이나 정치 효능감에는 긍정적인 예측력을 가지는 반면에 정치 참여에는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Keum & Cho, 2015). 즉, 정치적 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으로 상호 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 오히려 정치적 결해의 인지·정서적 양가성(ambivalence)이 증가되어(Nir, 2005; Visser & Mirabile, 2004) 오히려 정치 참여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대화에 대한 인식이 정치 효능감과 같은 정치 참여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며, 나아가 정치적 참여 행위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투표 참여 촉진 요인: 민주시민 교육, 투표자우대제도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인식

선행 연구의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투표 촉진 방안 중 하나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특히 학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적인 투표 경험의 기회가 필요하고, 정치적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와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주어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토론이나 좌담회를 학교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최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투표나 정치 시민에 대한 교육들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말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하겠지만 교육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학교에서 뭔가 배우고

있을 때 그때는 투표할 수 없는 나이긴 하지만 그때 더 오히려 투표하고 싶고 관심이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등의 언급이 나타났다.

민주시민 교육은 단순히 정치 지식이나 절차 등에 대한 습득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도, 정치 효능감, 그리고 비판 정신, 타협심 등 다양한 정치 태도에 관련한 학습이 아울러 이루어진다(Kim, 2017). 따라서 모의 선거나 모의 의회 등의 다양한 정치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청소년기부터 정치 태도 및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Lee, 2014), 청소년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정치 교육이 필요하다(Lee, 2010). 민주시민 의식과 투표 참여 간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탐구한 조진만(Cho,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점차적인 투표율 하락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현실적으로 국가나 정당이 민주시민 교육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역별 관학 협동을 통한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에서는 실제 선거 기간 동안 실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를 실시하는 학생 투표 프로그램이 체험적 선거 교육으로서 실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 교육은 이러한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부모에게 미치는 긍정적 성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2016). 또한 김대균(Kim, 2008)은 낮은 20대의 투표율을 올리는 대안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제시했는데 교육을 통해 정

치적 취향을 길러 줌으로써 무관심한 행위자나 냉소주의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시민 교육은 투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대학생들의 실천적 정치 참여-집회 참석, 선거 투표 행위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 지식 습득을 포함한 시민 민주주의 교육과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중재적 방법이 필요하다(Jang & Ryu, 2017).

20대의 투표 참여는 이미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공의 문제이며, 20대의 투표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선진국들은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공 캠페인들을 수립 실행하였다. 캐나다의 경우 투표 연령이 되기 전 아이들에게 시민 교육 프로그램인 ‘Student Vote’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 투표 등을 진행하는데, 2011년 선거 기간에는 3750개의 학교 56만3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의 투표를 통해 실제 투표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공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 선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투표가 시민의 의무라는 신념을 갖게 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Song, 2016). 미국 시카고에서 이루어진 성공적인 시민 교육 프로그램 킴바 프로그램은 청년들을 능동적 시민이자 공동체의 지도자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2016). 현재 110개 학교의 6000명 이상의 학생과 130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실천시민학(actioncivics)’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생활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교육 전략으로서 ‘청년의 선거 참여’, ‘청년의 정책 형성’, ‘청년의 공동체 문제 해결’ 등으로 구

성되었고, 학생의 72%가 졸업 후에도 공동체에서 자원 봉사자로 활동할 만큼 참여적 시민을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자원 봉사자로 활동하는 청년의 비율인 36%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투표 참여의 중요 요인으로서 검증하였다

투표자 우대 제도

김영인(Kim, 2017)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설명하는 5개의 모델을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인지 모델(cognitive engagement model), 보상 모델(general incentive model), 시민 자원 모델(civic voluntarism model), 공정성 모델(equity-fairness model), 그리고 사회 자본 모델(social capital model)이다. 보상 모델은 개인이 참여에 수반되는 이익(만족)과 비용(고통)을 비교하여 보상이 주어진다고 인식할 때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은 물질적인 차원뿐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집합적 보상, 선택적 보상, 집단적 보상, 사회적 보상, 그리고 표현적 보상 등으로 구성된다(Pattie, Seyd, & Whiteley, 2004).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 대학생들은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는데, 경품과 같은 물질적 보상이나 투표 참여자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혜택의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덧붙여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투표율 제고에) 가장 빠른 건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필요 없는 데 쓰지 말고 제발 이런 데에다가 좀 자원을 투자해서 투표

한 사람한테는 뭘가를 줬으면…….”, “놀이공원 할인 혜택이나 교수님들이 투표를 하고 오면 가산점을 준다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은 진짜 다 투표를 할 텐데” 등의 언급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투표 촉진의 방안으로 제시한 투표자 우대 제도를 보상 모델의 틀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투표 참여자에게 일정한 이익(인센티브)을 부여하는 투표 참여 촉진 제도가 존재하는데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센티브제가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우대 제도는 선택적 보상으로 선거에 참여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집단적 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투표율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센티브 제공과 의무 투표제를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이루어진 8회의 인센티브제 관련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 전체 8회 중에 6회의 조사에서 50%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인센티브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인센티브로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교통 편의 제공, 물품 제공, 할인 혜택 등의 우대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준한(Lee, 2010)이 한국의 투표 인센티브제에 대한 평가를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인센티브제가 투표율 향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65.9%가 그러한 기대 효과를 예상했고, 투표

자에게 공공 기관 취직 시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도입될 경우 유권자의 87.6%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투표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경우에는 88.8%가 투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실시한 ‘제3차 유권자 의식 조사’의 결과 20대 이하의 71.1%가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가 투표 참여에 있어 도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등 투표 참여 의도의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치 효능감: 내재적 · 외재적 효능감

정치 효능감은 정치 및 사회 변화가 가능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데 개개인의 시민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갖거나 혹은 가질 수 있는, 정치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의미한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P. 187). 정치 효능감을 2개의 차원으로 분류하는데, 에이브럼슨과 잉글하트(Abramson & Inglehart, 1978)는 내재적 정치 효능감과 외재적 정치 효능감으로 나누어 내재적 정치 효능감은 정치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자신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 지각을 의미한다(Kim, 2016). 한편 외재적 효능감은 개인의 요구에 대해 정치 기구나 집단 및 정부가 적절히 반응하고 정치 기관 및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뜻한다(Balch, 1974).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의 역할이나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재적 효능감과 외재적 효능감이 동시에 높을 때는 높은 수준의 정치 참여로 이어지고 아울러 개인의 정치적 역량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내재적 효능감은 높지만 외재적 효능감이 낮을 경우 시민들은 투표나 정당, 시민 단체 등을 경유하는 관습적 참여를 포기하고 개인이 주체가 되는 단발성의 항의나 시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Park, 2014). 한편 정치 효능감 중 내재적 효능감은 ‘공직자 접촉’과 ‘선거 운동’에, 외재적 정치 효능감은 ‘항의’에 대한 참여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정치 효능감은 정치 참여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ong & Ryu, 2015). 가장 대표적인 능동적 정치 참여인 투표 행위는 정치 효능감, 정치 신뢰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6). 한편 본 연구에 앞서 실시한 포커스 그룹 토론에서 대학생들은 낮은 정치 효능감을 보인 바 있는데,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이 실제 정책에는 잘 반영되지 않으며,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자들이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는 언급들을 살펴보면 “투표를 해도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직은 별로 없죠”, “제가 누가 좋아서 후보를 뽑았다고 한들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할 것 같지 않은 거죠” 등의 언급이 나타났다.

정치 효능감이 실제 정치 참여, 즉 투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Hong, 2012; Morrell, 2003; Song & Park, 2006), 20대의 낮은 정치 효능감은 그들의 투표율이 낮은 현실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효능감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참여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정치 효능감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들은 정치 효능감이 정치적 참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연구(Choi, 2012; Park & Sung, 2005; Song & Park, 2006), 정치 관련 미디어 이용이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Keum & Cho, 2015; Moon & Kim, 2014; Yang & Lee, 2013), 정치에 대한 관심(Cohen, Vigoda, & Samorly, 2001; Morrell, 2003)이나 정치 체제와 정치 단체에 대한 믿음(Niemi, Craig, & Mattei, 1991), 정치 관련 대화, 지식(Jung & Kim, 2015; Kim, 2013)과 같은 요인들이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렇듯 정치 효능감은 정치와 관련된 정보 습득, 정치에 대한 관심도나 신뢰, 혹은 정치와 관련된 개인의 인식적인 요인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또한 정치적 행동을 촉발시키는 기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대화, 정치공약에 대한 인식과 정치 효능감과의 관계

시민 간의 정치적 대화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대인 간 대화는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수로서 연구되어 왔다(Barber, 1984; Delli Carpini, Cook, & Jacobs, 2004; Kim, 2013). 19대 총선 동안 청소년들의 정치적 대화와 태도를 분석한 박정서(Park, 2012)에 따르면, 정치와 관련된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는 행위, 그리고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행위 모두가 정치 효능감을 높이며, 이러한 정치적 대화의 내용이 숙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의 정치와 관련된 사소한 대화들 또한 정치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대화와 효능감에 대해 살펴본 김은이(Kim, 2013)의 연구에서는 온·오프라인에서의 대인 간 대화가 내적 정치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춘식(Kim, 2010)은 인터넷 미디어나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하는 유권자의 경우 정치적 현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치 행위 실천이 사회적 차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강하게 갖는다고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정치적 대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치 효능감(내재적/외재적)은 높아지는가?

정책 선거 과정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즉, 유권자들 스스로가 정당 및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에 대한 인지와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약에 기반한 투표를 실시할 때 진정한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며,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책 실현이 가능

하다(Park, 2014). 공약에 대한 이해와 식별 능력은 개인의 정치적 역량이나 통제감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정치 지식과 정치 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나타났고(Choi, 2012; Jung & Lee, 2013), 19대 대선 공약과 유권자 행태를 살펴본 정희옥(Jung,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약 30%의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제시한 이슈들과 공약에 영향을 받아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후보자 간 정책적 차이를 인식하는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공약을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식은 정치적 영향력이나 관여, 혹은 정치인들을 판단하는 시각 등을 아우르는 정치적 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성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문제 2: 청년 세대를 위한 정치 공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치 효능감(내재적/외재적)은 높아지는가?

시민 교육과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와 정치 효능감과의 관계

앞서,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해 대학생들은 투표 참여 촉진 요인으로서 민주시민 교육과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이들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들에서 종종 논의되어 왔다. 먼저, 김영인(Kim, 2003)은 정치 참여 유형에 따른 법의식 및 정치 효능감

형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치 참여 성과가 정치 효능감 형성에 있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치 참여 교육이 효능감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박정서(Park, 2012)의 경우 청소년의 학생회 선거 참여 경험이 갖는 시민 교육적 함의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열망을 우선시하면서도 학생회를 통해 학교에 최소한의 변화라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를 함께 갖게 된다고 밝혔다.

연구문제 3: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정치 효능감(내재적/외재적)이 높아지는가?

최근 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제의 도입, 투표 확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유권자 편의 제공 및 투표 참여 혜택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실시된 6·13 지방 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48.4%로 30대에 이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8). 한편 투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정치 효능감 등의 정치 태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이후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점과 행동 유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인 특성으로 인해 정치에 관련한 인식, 태도 변인에 관련해서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투표 촉진 요인인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가 자신들이 인식하는 정치적 영향력, 효능감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여에 대한 ‘시민 마일리지’나 ‘가산점’ 등의 사회적 인정 혹은 물질적 보상 등의 투표 참여에 대한 혜택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한다면 내재적, 혹은 외재적 정치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문제 4: 투표 참여 우대 제도의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정치 효능감(내재적/외재적)이 높아지는가?

정치 효능감과 투표 참여

정치 효능감은 투표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원식(Hong, 2011)은 합리적 선택 모델을 바탕으로 정치 효능감, 그중에서도 투표 효능감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여 대학생들의 투표 의지 형성 요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는데, 대학생들의 불만, SNS의 이용은 투표 효능감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 반면, 정치적 냉소는 투표 효능감을 낮추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불만감, SNS의 이용, 정치적 냉소는 투표 의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만을 가졌지만, 투표 효능감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김옥(Kim, 2013)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결과, 시민적 의무감, 정치 효능감, 동원 경험 세 요인은 투표 참여에 매우 분명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발견하였다. 장석준과 유승관(Jang & Ryu, 2017)의 분석에 따르면, 정치 효능감과 정치 지식은 대학생의 정치 참

여, 특히 실천적 참여인 집회 참석, 선거 투표 등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 변인과 대통령 선거를 연구한 최영재(Choi, 2016)에 따르면 정치적 관심과 참여도에서 20-30세대와 40-60세대가 낮고 높음으로 구별되었고 정치적 효능감에 있어서도 50-60 장년 세대가 가장 높았고 20-30세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세대에 따른 정치 효능감의 차이는 정치 참여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연구문제 5: 정치적 효능감은 투표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1: 내재적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 의도가 높아지는가?

연구문제 5-2: 외재적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 의도가 높아지는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효능감이 투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미디어 이용 등을 통해 습득한 정치 정보에 의해 형성된 정치 지식이나 인식이 정치 참여 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 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 Ko, 2013; Ahn & Shin, 2006). 즉, 정치적 효능감이 투표 의사 결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기는 하나, 이러한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는 선행 요인들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례로, 이영수와 이재신(Lee & Lee, 2009)은 정치 참여에 대한 기대감과 사회 자본으로서 대인 신뢰가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개인의 정치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치적 효능감이 독립 변수로서 투표와 같은 정치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정치와 관련된 정보 추구 행동이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과 같은 변인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형성하게 하는 선행 요인이 되어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문제 6: 투표 행동 촉진/장애 요인과 투표 의도간의 관계를 정치 효능감(내재적/외재적)이 매개하는가?

연구 방법

조사 방법 및 연구 대상 선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는 서울과 수도권 및 충청권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복수의 강의 시간에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16년 11월 1일에서 11월 15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투표권을 가진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했으며 총 280명의 설문 응답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간주된 21명을 제외한 총 259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조작적 정의 및 척도 구성

투표 참여 의도

투표 참여 의도는 '선거를 통해 의사 결정자인 공직자를 선출하는 데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로 조작적 정의한다. 측정 항목은 박상호(Park, 2009)의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만약 이번 달에 선거가 있다면 나는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나는 투표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다", "2017년 내년 선거에는, 나는 꼭 투표할 것이다"의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 5점',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 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치 효능감

정치 효능감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격과 능력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도, 또한 자신이 의도한 대로 정치체제의 반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정치 효능감은 정치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정서로 '내재적 정치 효능감'과 '외재적 정치 효능감'으로 분류된다. 내재적 정치 효능감은 "참여 능력, 정치나 정부에 대한 이해 능력,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인식"을 말하며, 외재적 정치 효능감은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책 결정자가 반응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말한다(Park, 2005). 내재적 정치 효능감과 외재적 정치 효능감의 측정 척도는 남인용과 허일수(Nam & Huh, 2012)가 개발한 정치 효능감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매우그렇다 = 5점',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구성되었다. 정치 효능감을 측정하는 설문의 내용이 부정적이므로 점수가 높

을수록 정치 효능감이 낮다고 분석하였다. 내재적 정치 효능감을 물어보는 항목은 총 6가지로 “나는 내가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 정치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나는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란 원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므로 내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치는 너무 복잡해서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치는 날씨와 같아서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로 구성되었다. 외재적 정치 효능감은 “나는 정치인들이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의견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 정치인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치인들이 선거에 당선된 후, 시민들의 바람을 빨리 잊어버린다고 생각한다”로 구성하였다.

공약에 대한 인식

장애 요인 중 하나인 공약에 대한 인식은 ‘대학생이나와 내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공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질문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나는 나와 내 또래를 위한 정치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와 내 또래를 위한 정치 공약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정치인들이 나와 내 또래를 정치적 공약의 대상으로 고려한다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 5점’,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약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높

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적 대화

정치적 대화는 ‘말하기’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듣기’ 역시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바버(Barber, 1984)는 민주주의에서의 정치 담화(talk)는 ‘말하기’ 뿐만 아니라 ‘듣기’를 포함하는 상호 참여 예술의 시민적 퍼포먼스로 보았으며, 이러한 정치 담화가 이뤄졌을 때 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정치적 대화는 김주환(Kim, 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 이슈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기초로 한 듣고 말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측정 항목은 박정서(Park, 2012)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나는 정치나 투표에 관하여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편이다”, “나는 정치나 투표에 관하여 친구에게 말하는 편이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정치나 투표에 대해서 대화하는 편이다”, “내가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 정치나 투표에 관한 내용이 이야기거리로 나오는 편이다”의 총 4문항으로 진행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일 그렇다 = 5점’, ‘자주 그렇다 = 4점’, ‘가끔 그렇다 = 3점’,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대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

민주시민 교육의 조작적 정의는 마토렐라(Martorella,

1996)의 정의인 “민주시민 교육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이나 가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정치 체제나 사회 체제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설문 문항은 최동철(Choi, 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시민 의식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서 문항을 구성하였다. 문항은 총 3문항으로 “나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역코딩)”, “나는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역코딩)”로 물어 보았다.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 5점’,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

본 연구에서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는 이준한(Lee, 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에게 투표한 대가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측정 항목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실시한 ‘제3차 유권자 의식 조사’를 문항을 참고하여 “나는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가 투표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가 투표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역코딩)”, “나는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와 투

표 참여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역코딩)”를 사용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 5점’,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의 실효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통제 변인: 정치 신뢰

본 연구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되었다. 이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 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등 총 15가지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정치 및 투표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정치 신뢰(political trust)란 “개인이 정부 또는 정치 체제에 대하여 느끼는 신임의 정도”로 정의한다(Aberbach & Walker, 1970; Park, 2009). 측정 항목은 박상호(Park, 2009)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NES의 정치적 신뢰 측정 항목을 토대로 측정된 네 가지 측정 문항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 5점’, ‘그렇다 = 4점’, ‘보통이다 = 3점’, ‘그렇지 않다 =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 1점’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하였다. 항목은 “나는 정부의 정책이 옳다는 믿는다”, “나는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에서 세금을 잘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직하다고 생각한다”로 구성되었으며. 척도의 평균값($M = 4.26$, $SD = .83$)으로 정치 신뢰도 지수를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연구 결과

표본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60명(61.8%)으로 남성 99명(38.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평균 연령은 22세이며, 학년은 2학년이 74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학년 72명(27.8%)과 4학년 이상 66명(25.5%)이 그 뒤를 따랐다. 거주 지역의 경우 경기도(168명, 64.9%)와 서울(40명, 15.4%)이 총 208명(6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도가 31명(12.0%)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응답자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이 속한 계층을 뜻하는 인식 계층은 중위층이 148명(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하위층이 56명(21.6%), 중상위층 45명(17.4%) 순이었다.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검증

연구 모형의 검증에 앞서,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 있

는 투표 참여 요인(공약에 대한 인식, 정치적 대화, 민주시민 교육 필요성, 투표 촉진 제도)와 정치 효능감(내적/외적), 그리고 투표 의도 변인들의 구성 개념(construct)으로서의 특성을 살펴보고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 항목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의 요인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채택하였으며, 베리맥스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을 이용하여 고유키포(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요인 적재치는 0.4를 기준으로 하였다 (Song, 2014).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투표 참여 요인에 포함된 총 13개의 측정 항목들은 정치적 대화의 정도, 공약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의 네 가지 요인으로 적절하게 축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에 활용된 자료가 요인 분석에 적합한 분산과 변량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KMO(Kaiser-Meyer-Olkin) 값은 .712로 나타나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Yang, 2006), 도출된 잠재 요인들의 다중 상관을 알아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chi^2 = 1180.664$, $df = 78$, $p < .001$) 사후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 효능감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2개의 요인으로 축약되었으며, 총 9개의 측정 문항 중 “나는 내가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 정치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의 1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KMO 값은 .745로 나타나 요인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Voting Participation

Items		Component			
		1	2	3	4
Political Conversation	1. I tend to listen to my friends about politics or elections.	.682	.096	.023	.085
	2. I tend to speak to my friends about politics or elections.	.858	.040	.016	.001
	3. I tend to talk about politics or elections when my friends are around.	.921	.080	.027	-.005
	4. My friends and I often talk about politics or elections.	.850	-.050	.103	-.044
Perception about Pledges	1. I think that political pledges specifically for me and my peers are necessary.	.145	.671	-.126	.090
	2. I think that political pledges specifically for me and my peers are sufficient. (reverse)	-.006	.758	.260	.105
	3. I think that politicians consider me and my peers when they propose political pledges. (reverse)	-.035	.649	.162	.053
Need for Civic Education	1. I think that our society offers sufficient civic education for democracy. (reverse)	.071	.179	.841	.060
	2. I think that our society needs civic education for democracy.	.213	.378	.474	.018
	3. I think that I have received sufficient civic education for democracy. (reverse)	-.029	-.013	.859	.099
Preferential Voting	1. I think that preferential voting will help voting participation.	.038	.042	-.056	.815
	2. I think that preferential voting will not influence voting participation. (reverse)	.001	.140	.157	.825
	3. I think that preferential voting has nothing to do with voting participation. (reverse)	.002	.078	.095	.876
Eigen Value		3.163	1.162	1.679	2.492
Explanatory Variance(%)		24.331	8.940	12.918	19.170
Cumulative Variance(%)		24.331	65.359	56.520	43.501
Cronbach's Alpha (α)		.854	.516	.680	.803

구형성 검증 결과($\chi^2 = 668.760, df = 28, p < .001$) 또한 사후 분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탐색적 요인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각 요인에 포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Political Efficacy

items		component	
		1	2
External Political Efficacy	1. I think that politicians are not interested in opinions that are not compatible to their own.	.746	.113
	2. I think that politicians do not care about what I want.	.849	.025
	3. I think that politicians become forgetful about what people wish after they get elected.	.780	-.206
Internal Political Efficacy	1. I should not interfere in politically important matters.	-.159	.760
	2. I would be better off not involving in politics because it is a politicians' job.	-.112	.805
	3. I do not understand politics because it is too complicated.	.022	.655
	4. Whether I vote or not, it does not make much difference.	-.006	.802
	5. I have no control over politics because it is like weather.	.199	.778
Eigen Value		1.952	2.969
Explanatory Variance(%)		24.396	37.116
Cumulative Variance(%)		61.512	37.116
Cronbach's Alpha(α)		.707	.816

함된 항목들의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크론 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탐색적 연구의 경우 크론바흐 알파 기준값을 0.5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치를 적용하였다(Nunnally, 1978). 검증 결과, 정치적 대화의 정도($\alpha = .854$), 공약에 대한 인식($\alpha = .516$), 민주주의 교육의 필요성($\alpha = .680$),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alpha = .803$), 외재적 정치 효능감($\alpha = .707$), 내재적 정치 효능감($\alpha = .816$) 모두 비교적 적절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투표 참여 의도($\alpha = .889$)와 통제 변인인 정치 신뢰도($\alpha = .796$) 또한 신뢰도 계수가 일반적인 권

장 수준인 0.7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들의 내적 일치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석

본 연구 개념에 대한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을 위하여 공변량 구조 분석에서 많이 이용되는 AMOS 18.0을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는 $\chi^2 = 418.419(p < .001)$, CFI = .913, GFI = .876, TLI = .895, NFI = .843, IFI = .915, RMSEA = .061, SRMR = .072로 전반적으로 모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Variables

	items	β	<i>S.E.</i>	<i>C.R.</i>	p	Construct Reliability	AVE
Political Conversation	item 1	.545	—	—	—	.862	.619
	item 2	.782	.191	9.120	.000		
	item 3	.966	.204	9.761	.000		
	item 4	.797	.181	9.231	.000		
Political Pledges	item 2	.853	—	—	—	.803	.485
	item 3	.493	.164	4.378	.000		
Need for Civic Education	item 1	.866	—	—	—	.705	.458
	item 2	.465	.072	6.072	.000		
	item 3	.639	.100	7.261	.000		
Preferential Voting	item 1	.648	—	—	—	.891	.587
	item 2	.787	.121	9.859	.000		
	item 3	.849	.147	9.822	.000		
External Political Efficacy	item 1	.549	—	—	—	.716	.462
	item 2	.764	.167	6.945	.000		
	item 3	.707	.158	7.018	.000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tem 1	.703	—	—	—	.822	.480
	item 2	.759	.105	10.713	.000		
	item 3	.530	.121	7.749	.000		
	item 4	.753	.128	10.652	.000		
	item 5	.710	.129	10.141	.000		
Intention of Voting Participation	item 1	.862	—	—	—	.892	.733
	item 2	.895	.060	17.654	.000		
	item 3	.810	.051	15.764	.000		

형 적합도의 기준치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u & Bentler, 1999). 한편, 이론적 모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4 이하의 설명력을 보이는 1개의 문항을 제거하였다. 일반적으로 집중 타당성은 표준화계수 .5 이상, 개념 신뢰도 .7 이상,

평균 분산 추출값(AVE) .5 이상을 권고하고 있는데(Fornell & Larcker, 1981; Hair, Ringle, & Sarstedt, 20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수들 모두 기준치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타당한 요인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

Table 4. Correlation Matrix among Constructs

Construct	<i>M(S.D)</i>	Political Conversation	Political Pledges	Civic Education	Preferential Voting	External Efficacy	Internal Efficacy	Voting Intention
Political Conversation	3.33 (.816)	(.619)						
Political Pledges	3.62 (.832)	.102	(.485)					
Civic Education	3.68 (.634)	.121	.449***	(.458)				
Preferential Voting	3.67 (.710)	.027	.277***	.224**	(.587)			
External Efficacy	3.81 (.750)	.218**	.274**	.173*	.092	(.462)		
Internal Efficacy	2.11 (.747)	-.172*	-.297***	-.258**	-.248**	-.085	(.480)	
Voting Intention	4.57 (.567)	.238***	.139	.161*	.183*	.252**	-.524***	(.733)

* $p < .05$. ** $p < .01$. *** $p < .001$.

: The value of the shaded cell is the AVE value for each variable.

단하였다. 또한, 판별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구성 개념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r^2)과 AVE를 비교하였다. 구성 개념 간 r^2 는 .007~.275, AVE는 .462~.733 사이를 나타냈으며, 비교 대상이 되는 AVE 값이 r^2 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이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의 검증에 앞서, 조사 시점에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집회 추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와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뒤따르는 등 국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 신뢰도’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치 신뢰도가 본 연구의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그리고 종속 변수 등에 각각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했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통제 변수가 사용되어 발표된 국내 연구 논문의 수는 매우 적어서 통제 변수를 사용한 모형 검증에 신중을 기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

초기 연구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484.043$ ($df = 236, p < .001$), CFI = .901, GFI =

.863, TLI = .884, NFI = .826, RMSEA = .063, RMR = .064로 나타나 일부 결과가 모형의 적합도를 판정하는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Hu & Bentler, 1999). 이에 따라 수정 지수(Modification Indices: MI)가 높은 값 중에서 공분산 존재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에 한해 해당 요인을 연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적 효능감을 구성하는 3개의 요인에

대한 오차들 간 공분산 관계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440.637(df = 234, p < .001)$, CFI = .921, GFI = .880, TLI = .907, NFI = .845, RMSEA = .056, RMR = .063로 개선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참조).

Table 5. Model Fit

	χ^2	df	p	RMR	RMSEA	NFI	CFI	TLI
Proposed Model	484.043	236	.000	.064	.063	.826	.901	.884
Final Model	440.637	234	.000	.063	.056	.845	.921	.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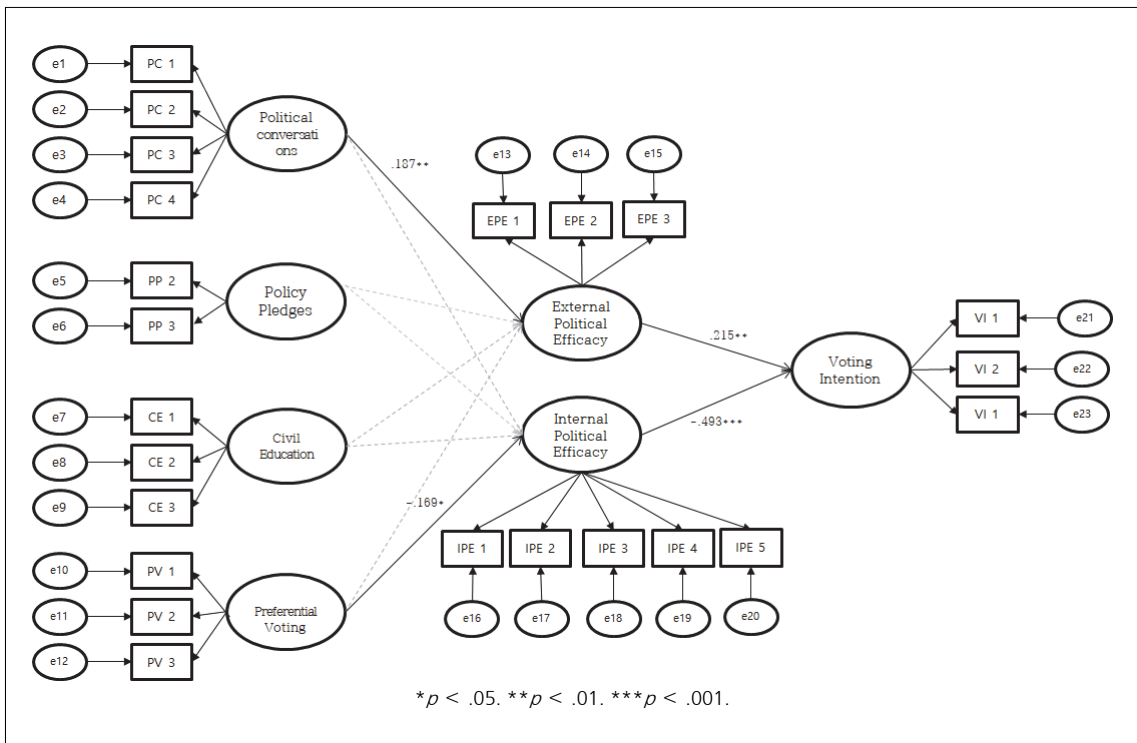


Figure 1. Result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연구문제 검증

먼저 정치적 대화 변인이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정치적 대화의 정도는 외재적 효능감에 한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7, p < .01$). 따라서 <연구문제 1>은 지지되었다. 즉, 정치나 투표와 관련하여 주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할수록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독단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약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필요성 인식은 내·외재적 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각각 기각되었다.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내·외재적 정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문제 4>의 경우, 내재적 정치 효능감에 있어서만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169, p < .05$),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와 같은 보상을 제공하면 투표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외재적 정치 효능감이 투표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문제 5>의 경우 외재적 정치 효능감($\beta = .215, p < .01$)과 내재적 정치 효능감($\beta = -.493, p < .001$)에서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정치를 한다고 인식할수록(외재적 효능감) 투표 의도는 높아지는 반면, 자신이 정치나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고 인식할수록(내재적 효능감) 투표 의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통제 변인인 정치 신뢰도는 청

Table 6. Results of Path Coefficients

	Path	β	S.E.	C.R.	p	Result
Q1-1	Political Conversation → External Efficacy	.187	.052	2.566	.010	accepted
	Political Conversation → Internal Efficacy	-.097	.051	-1.584	.113	rejected
Q1-2	Political Pledges → External Efficacy	.107	.091	1.011	.312	rejected
	Political Pledges → Internal Efficacy	-.070	.093	-.763	.445	rejected
Q1-3	Civic Education → External Efficacy	.047	.080	.599	.549	rejected
	Civic Education → Internal Efficacy	-.120	.083	-1.720	.085	rejected
Q1-4	Preferential Voting → External Efficacy	.007	.054	.099	.921	rejected
	Preferential Voting → Internal Efficacy	-.169	.057	-2.536	.011	accepted
Q2-1	External Efficacy → Voting Intention	.215	.076	2.825	.005	accepted
Q2-2	Internal Efficacy → Voting Intention	-.493	.067	-6.271	.000	accepted

Table 7. Testing for Mediation Effects of Political Efficacy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Soble Z-test	<i>p</i>
Political Conversation → External Efficacy	.133	.052	1.893	.058
External Efficacy → Voting Intention	.214	.076		
Preferential Voting → Internal Efficacy	-.143	.057	2.328	.020
Internal Efficacy → Voting Intention	-.419	.067		

년층에 대한 공약 필요성 인식($\beta = -.487, p < .001$)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필요성 인식($\beta = -.264, p < .001$),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beta = -.193, p < .01$), 그리고 외재적 정치 효능감($\beta = .215, p < .00$)과 내재적 정치 효능감($\beta = .355, p < .001$)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신뢰 변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투표 참여 장애 및 촉진 요인과 투표 의도 사이의 내·외재적 정치 효능감의 매개 효과(〈연구문제 6〉)를 측정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서 Sobel Z-test를 실시하였는데 이 방법은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 사이의 비표준화 경로계수와 표준오차, 매개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경로계수와 표준 오차의 z-test 를 통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Lee, 2014). 분석 결과, 정치적 대화와 투표 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외재적 효능감의 매개 효과는 90% 신뢰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score = 1.893, $p < .10$). 투표 참여 우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투표 의도 간의 관계에 있어 내재적 효능감

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score = 2.328, $p < .0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투표 참여에 관련하여 나타난 내재적 정치 효능감과 외재적 정치 효능감 개념, 투표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서 대학생을 위한 공약 부족과 정치 대화의 부족, 그리고 투표 참여 촉진 요인으로서의 민주시민 교육과 투표자 우대 제도 실시 등을 개념화하여 이러한 개념들이 투표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문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를 설명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변인은 ‘내재적·외재적 정치 효능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치적 대화는 외재적 정치 효능감에 한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적 대화가 정치 효능감을 거쳐 투표 의도로 가는 경로는 90% 신뢰 구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대화로 인해 정치인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더 크게 확대될 경우 투표와 같은 정치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재적 정치 효능감에서 투표 참여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정치를 한다고 인식할수록 투표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정치 대화가 정치 효능감에 관련이 있다는 금희조와 조재호(Keum & Cho, 2015)의 연구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치적 대화가 주로 대인 간 소통이나 대화의 맥락에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SNS 등을 통한 온라인상의 정치적 대화나 소통, 혹은 정치적 정보 교환 등이 내·외재적 정치 효능감을 거쳐 정치 참여 행동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대학생들이 제안한 투표율 제고 방안인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내·외재적 정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내재적 정치 효능감에 있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가 투표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내재적 정치 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 대학생 집단에 있어 이러한 투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자신이 정치나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고 인식하는 내재적 정치 효능감과 연결하여 오히려 투표 의도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대학생 자신들이 투표자 우대 제도를 통해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이러한 제도는 자신의 주체적인 정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투표 의도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로부터 정치적 효능감의 두 개의 차원은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적 대화에 대한 인식은 외재적 효능감을 거쳐, 그리고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에 대한 인식은 내재적 정치 효능감을 거쳐 투표 참여 의도로 연결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정책 결정자가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인 외재적 효능감이 높아지면 투표 의도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인 내재적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 의도를 낮추게 된다.

따라서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공 캠페인이나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소통 전략은 두 개의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 먼저, 내재적인 차원에서 각 개인의 영향력에 대한 소구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하나의 투표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많은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무관심에 빠지는 경우를 고려할 때, 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해설과 분석은 새로운 소통 전략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30세대는 정치·시사 이슈에 관련한 팟캐스트의 핵심 청취 그룹인 것도 이러한 소통의 필요성을 반영한다.

정치적 대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시기부터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어 정치에 대해 이해, 말

하기와 쓰기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겠고, 대학생의 경우,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정치 참여나 정치 현상, 이슈 등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캠퍼스 내 캠페인 등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두 번째로 외재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정책이나 정당, 정치인의 활동이나 역량 등 실제 정치 활동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외재적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투표와 같은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 모형의 검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정치 신뢰도가 통제 변인으로 투입되었다는 것이다.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던 시기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2주 경과한 시점이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설문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정치 태도의 지표로서 정치 신뢰도를 연구 모형 검증의 통제 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정치 신뢰도는 청년층에 대한 공약 필요성 인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 필요성 인식,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 그리고 외재적 정치 효능감과 내재적 정치 효능감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황적 요인들에 의한 변수 통제에 실제로 연구 모형을 검증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투표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투표 행동을 이해하고, 투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정치 참여나 투표 행

위를 설명하는 일련의 연구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주요한 변수로 꼽고 있는 가운데, 정치 효능감과 투표 행동과의 직접적 관계를 검증하거나 정치 효능감의 선행 요인을 찾는 데 집중하였다면,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실질적인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 장애 요인과 투표 제고 요인들을 기반으로 투표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식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요인과 정치 효능감, 그리고 투표 행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매개 변수로서 정치 효능감의 역할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외재적·내재적 효능감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투표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감지적 접근에 의한 FGI 토론과 설문 조사의 두 차례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하였지만 실증적인 검증은 편의 표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분석 결과에 대한 일반화의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여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정치적 태도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응답자들에게 정치 신뢰를 측정하고 이 변인을 통제 변인으로 투입하여 연구 모형을 검증했지만 상황적 요인에 따른 설문 참여자의 응답에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는 정치 참여를 보다 세분화하고 다차원화하여 투표 행

동과 같은 관습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이 아닌 SNS 등을 통한 인터넷 토론, 소비자 운동,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표현적 참여, 정당 가입이나 정치인 접촉

등의 제도적 참여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대학생의 정치적 참여와 일상 속의 정치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berbach, J. D., & Walker, J. L. (1970). Political trust and racial ideolog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4), 1199-1219.
- Barber, B. (1984). *Strong democra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lch, G. I. (1974). Multiple indicators in survey research: The concept "Sense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Methodology*, 1(2), 1-43
- Campbell, A., Gurin, G., & Miller, W. E. (1954). *The voter decides*.
- Cho, I.-H., Jung, K.-H., & Lee, H.-Y. (2008). Effects of political attitude on political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10, 175-207.
- Cho, J. (2010).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ters' perception on civic duty and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23(1), 85-104.
- Choi, D. C. (2013). *A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 Ky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olitical Studies.
- Choi, Y. J. (2016). Generation effect on election results: An analysis of generation effect in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Journal of Speech, Media & Communication Research*, 15(2), 316-352.
- Choi, J. (2012). The influence of SNS use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27, 369-408.
- Chung, T. I. (2009). Critical comments about depoliticization in the age groups of twent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50, 331-351.
- Cohen, A., Vigoda, E., & Samorly, A. (2001).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personal-psychological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 structural equations framework. *Political Psychology*, 22(4), 727-757.
- Dervin, B. (1976). The everyday information needs of the average citizen: A taxonomy for analysis. *Information for the community*, 19-38.
- Dervin, B., & Foreman-Wernet, L. (Eds.) (2003). *Sense-making methodology reader: Selected writings of Brenda Dervin*. Cresskill, NJ: Hampton Press.
- Dow, M. J., Boettcher, C. A., Diego, J. F., Karch, M. E., Todd-Diaz, A., & Woods, K. M. (2015). Case-based learning as pedagogy for teaching information ethics based on the Dervin sense-making methodolog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2), 141-157.
- Foreman-Wernet, L., & Dervin, B. (2017). Hidden depths and everyday secrets: How audience sense-making can inform arts policy and practice. *Journal of Art Management, Law & Society*, 47, 47-63.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 39-50.
- Hair, J. F., Ringle, C. M., & Sarstedt, M. (2011). PLS-SEM: Indeed a silver bullet. *The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9(2), 139-152.
- Hong, H. S., & Ryu, E. Y.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trust on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Using Mplus/Amos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 14(2), 131-156.
- Hong, W.-S. (2011). What made college students vote in 10.26 by-election?.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23, 327-35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Jang, S., & Ryu, S. (2017). The influence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knowledge and political cynicism on political participation: Focus on college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Political*

- Communication*, 47, 137-162.
- Jeong, H. (2018). Election promises and voting behavior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n South Korea.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8(1), 45-66.
- Jeong, H.-W., & Lee, G.-S. (2013). How the combination of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trust influences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9(1), 211-244.
- Jung, N., & Kim, S. (2014). Explicating the effects of political discussion in SNS with similar/dissimilar others in political opinion: Focusing on perceived self-exposure to multiple perspective, perceived information acquisition, political participation, knowledge, interest and efficacy.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38, 73-112.
- Keum, H., & Cho, J. (2015). The influences of news use and political discussion on political knowledge, efficacy, and participation: The relative effects of media and communication channel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3), 452-481.
- Kim, C.-H. (2016). 4.13 Characteristics of national election voters and effects of pledges for youth. *Korea Institute for the Future*.
- Kim, D. G. (2008). Correlation of electoral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e Korean Civic Ethics Review*, 21(2), 51-67.
- Kim, E. (2013). The mediating role of interpersonal talks and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e effects of online and SNS uses on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31, 31-62.
- Kim, H. (2016). The divers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focusing on internal efficacy and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Korean Politics*, 25(1), 81-110.
- Kim, M.-J. (2017). The effect of political education on citizenship of students :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Oughtopia*, 32(1), 101-123.
- Kim, S.-J., & Cheong, Y. G. (2017). Influence of political orientation, use of news media and political convers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attitude and behavior: Focusing on impeachment of Park Geun-Hy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5), 69-101.
- Kim, T. H., Park, H. J., & Park, Y. H. (2015). Analysis of policy types of election pledges and policy implementation.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5(4), 245-264.
- Kim, W. (2013). An analysis of the linkage between voting participation and other forms of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6(2), 27-59.
- Kim, Y. (2017).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of youth participation: Focused on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Forum For Youth Culture*, 52, 37-71.
- Lee, B. M. (2014). The effect of youth participation o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tention in adulthood.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6(1), 183-212.
- Lee, H. E. (2014). Review of methods for testing mediating effects in recent HRD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Quarterly*, 16(2), 225-249.
- Lee, J. H. (2010). An evaluation of the so-called voting incentive systems. *Social Science Studies*, 18(1), 214-248.
- Lee, K. Y. (2010).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orientation of participants in the candlelight protest of 2008. *Korean Party Studies Review*, 9(1), 95-120.
- Lee, S. (2016).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social participation and family attitudes in East Asi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S. C. (2018). The influe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wareness upon citizens' political participation action.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 395-405.

- Lee, S. (2018, 6, 5). [Youth, Talking about Elections] Excuses for '50%' vote turnout. *Kukinews*. URL: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54327>
- Lee, Y. M. (2010).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attitudes and the formation path of the political preference of the 20s' in South Korea. *Social Research, 19*, 9-43.
- Lee, Y. J., Kim, Y. C., & Yoon, J. H. (2016). Principles and present tasks for civic education. *Research Report,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2016(2)*, 1-100.
- Martorella, P. H. (1996).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RIC.
- Min, B.-K., Kim, D.-K., & Han, S.-H. (2013). The study of political ident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college student in Daejeon a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24(1)*, 77-103.
- Moon, W.-K., & Kim, E. (2014). The effects of social media service quality of political inform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of young voter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use of social media and political efficac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8(3)*, 145-172.
- Morrell, M. E. (2003). Survey and experimental evidence for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Public Opinion Quarterly, 67(4)*, 589-602.
- Nam, I., & Huh, I. (2012). Adolescents' and university students' political effic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y using media. *Journal of Political Communication, 24*, 5-35.
- Niemi, R. G., Craig, S. C., & Mattei, F. (1991). Measuring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e 1988 national election stud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4)*, 1407-1413.
- Nunnally, J. (1978). *Psychometric method*. New York, NY: McGraw-Hill.
- Park, J. S. (2012). The effect of adolescents' information-seeking political participation on a sense of commun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0)*, 45-71.
- Park, S. H. (2009). A study on the effect of portal news' using motive influence internet self-efficacy, political trust, political cynicism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5)*, 153-175.
- Pattie, C., Seyd, P., & Whiteley, P. (2004). *Citizenship in Britain: Values, participation and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 D., Leonardi, R., & Nanetti, R. Y. (1994).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K.-A., & Han, M.-J. (2013). The Korean babyboomers as new seniors: Their attitudes and perceptions about life after retirement and their content needs for successful transition. *Media, Gender & Culture, 25*, 113-144.
- Song, J. (2014). *SPSS/AMOS Methods for statistical analysis*. Paju: 21st Century.
- Song, K., & Park, D. (2017).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voting behavior by generation: A focus on voters in Daegu and Gyeongbuk.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5(3)*, 39-64.
- Song, S. (2016). Study on introducing student vote program for prospective voters under the Korea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Korea Law Review, 80*, 1-38.
- Yoo, T.-G. (2010) Theories and realities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trus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14(2)*, 243-267.
- Yoo, T.-G. (201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trust: Diversity and relationship of their types.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2(1)*, 273-308.
-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ttp://www.nec.go.kr>
- 최초 투고일 2018년 08월 10일
 논문 심사일 2018년 09월 11일
 논문 수정일 2018년 10월 0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08일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Leading to College Students' Voting Intention

Perceptions about Political Conversations, Preferential Voting, and Internal & External Political Efficacy

Kyung-Ah Shin

Lecturer, Dept. of AD&PR, Hanyang Univ.*

Jeong-Eun Kim

Media & PR Division, Seoul Metropolitan Council

Mijeong Han

Professor, Dept. of AD&PR, Hanyang Univ.**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factors that lead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voting.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by use of questionnaires. The sample size was 259 students.

Results

College students identified lack of political conversations and of policy pledges for them as barriers and need for civil education and preferential voting as promoting factors for voting. Subsequently the study empirically tested the influence of these variables on both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on voting intention. It was established that political conversations variabl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external political efficacy. External political efficacy variable was related to voting intention. Most respondents perceived that politicians neglect and improperly respond to people's needs, the higher intention of their voting participation. Perceptions that preferential voting system help higher voting turnouts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rnal political efficacy. A path from internal political efficacy to voting inten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ing that the lower internal political efficacy respondents perceived, the lower respondents' voting intention were expressed.

Conclus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both internal and external political efficacy are important variables in explaining college students' voting intention. Efforts to encourage political conversations among college students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external efficacy and voting intention.

KEYWORDS College Students, Voting Participation, Political Conversations, Internal Political Efficacy, External Political Efficacy, Preferential Voting

* chloe563@gmail.com, First Author

**mjhan909@hanyang.ac.kr, Corresponding Author